

나주시 '취약 근로자' 권리구제 나섰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찾아가는 무료 법률구조상담 노무사 선임 비용 30% 지원

나주시가 고용 환경이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나섰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2024년 취약 근로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 20일 나주시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두 차례 진행해 취약 근로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는 상담에 이어 취약 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1인당 2회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처음 1회는 60만원, 2회째는 40만원이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노동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가 고용 환경이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모습. <나주시 제공>

또 이번 공모선정으로 무료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나주시 최초로 취약 근로자 대상으로 법률 구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으로 하면 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법률 지식과 인권에 취약한 우리 지역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282억원 투입 6년 공사 화순군 상수도 현대화 완료 유수율 86%...판정위 합격

화순군이 6년여 동안 추진해 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목표 유수율을 달성해 한국상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6년간 총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순읍·능주면·도곡면 일원의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개선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화순군은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 측기 등도 설치했다.

또 신속한 누수복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당초 목표치(85%)보다 높은 86.6%로 높였다.

지난 2018년 64.9%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21.7% 포인트 향상시킨 것으로 연간 69만t 누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종욱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화순읍의 유수율 제고와 관망 개선을 통해 얻은 성과를 다른 면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수질, 수압 등의 지방상수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대표 브랜드쌀인 아미미쌀(새청무)이 25일 선적식을 갖고 미국 하와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 선적식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 아미미쌀, 하와이 수출길 오른다

수출물량 8t 지역 마켓 공급

장흥군 정남진장흥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 브랜드쌀인 아미미쌀(새청무)이 하와이 첫 수출길에 오른다.

수출물량은 총 8t으로 '카이커뮤니케이션' 수출업체를 통해 하와이 지역 마켓에 공급될 예정이다.

쌀은 20kg으로 개별 소포장하여 현지인에게 판매된다.

아미미쌀은 특유 찰진 식감과 풍부한 영양가로 유명하며,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및 아시아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이번 수출이 장흥군 농가 소득에 꾸준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남진장흥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품질 관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앞으로도 카이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미국 LA, 미국동부, 브루나이, 프랑스, 베트남 쪽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 백양사에 '뉴진스님' 뜬다

25~26일 이틀간 산사음악회 국악·라틴재즈·EDM 등 공연

'천년고찰' 장성군 백양사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뉴진스님'이라는 부캐(부가적 캐릭터)로 인기리에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가 출연해 공연장을 달군다.

장성군은 25~26일 이틀간 백양사에서 '백양뮤직페스티벌'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올 가을 산사음악회는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앞세울 만큼 흥미로운 공연들로 채워진다.

음악회가 열리는 곳은 백양사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다.

첫날인 25일 오후 5시부터 국악과 플라멩코 음악을 넘나드는 '소리계떼', 9인조 라틴재즈밴드 '코린그룹', 무가(巫覡)에 다양한 장르의 리듬을 결합한 음악을 들려주는 '추다해차지스'가 관객과 만난다.

26일에는 포르투갈 대중음악 '파두'와 한국인의 '한'을 녹여 넣은 '소유' 공연을 시작으로 민



백양사 산사음악회 포스터.

요와 플라멩코 가만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토케토리'의 무대가 기다린다.

마지막 순서는 '뉴진스님'의 이디엘(EDM) 공연이 펼쳐진다.

EDM 공연은 불교교리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담아내 '흥'을 돋운다.

뉴진스님은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연상시키는 재미있는 범명으로 조계종 주계식을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은 이름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천년고찰 백양사 산사음악회에서 깊어 가는 가을 정취와 이국적인 음악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 다음달 9일 폐장

공연·드론쇼 등 폐장행사

강진군은 '2024년 제8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1월 9일 폐장행사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애초 26일 폐장할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연이은 휴장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아쉬움이 커 11월 9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폐장행사는 올해 11회에 걸쳐 추진중인 강진 피싱마스터스 대회의 최종결선과 연계해 당일 낚시대회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문어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 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요요미, 금잔디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7시에는 고군대교를 배경으로 한 500대 규모의 드론이 마량의 밤하늘을 밝히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2023년까지 105만 명이상이 다녀가며, 누적 총매출 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올해로 개장 8년째를 맞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횡집 등 음식점과 수산물 코너, 건어물 판매대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을 견인하는 강진군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아 왔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재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남해안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에너지 절약하면 현금 드립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참여 독려

함평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군민에게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업용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반기별 5%에서 10% 줄이면 75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10% 이상 절감 시 1500포인트에서 1만5000포인트가 적립되고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규가입자는 5000포인트를 현금으로 받는다.

홍명희 함평군 환경관리과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지구를 살리는 힘이 된다"며 "많은 군민이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